

기아자동차 대우전자 LG전선

ECU 국산화 성공 분리형 냉장고 개발 감시 시스템 개발

ECU 국산화 성공

기아자동차(대표 金永貴)가 자동차 엔진을 제어하는 전장부품인 ECU를 국산화했다.

기아자동차 계열사인 모스트에서 지난 95년부터 3백억원을 투자, 15개월만에 국산화한 이 부품은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것으로 연간 6백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2백억원 정도의 원가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ECU는 대부분의 차량이 전자제어 방식으로 바뀌면서 차량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장부품이다. 그러나 국산화가 되지 않아 완제품 수입으로 인해 차량원가를 높이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따라 기아는 94년부터 추진하던 전장부품 국산화 계획의 하나로 ECU 국산화에 착수, 이번에 성공했다.

기아는 국산 ECU를 크레도스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세피아, 스포티지, 포텐사는 물론 하반기부터 시판되는 스포츠카 엘란과 T3등 앞으로 생산될 승용차 전차종으로 적용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분리형 냉장고 개발

대우전자(대표 裴洵勳)가 냉장고에 분리형 에어컨의 개념을 도입, 기계실내의 냉각팬과 컴프레서를 별도로 설치하는 분리형 냉장고를 개발했다.

대우전자는 3일 냉장고와 기계실을 분리한 새로운 개념의 분리형 냉장고를 개발하고 내년중 상용화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리형 냉장고는 냉각기만 냉장고 쪽에 두고 그

의 사이클부품은 모두 실외에 설치함으로써 소음을 없애고 저장공간을 극대화한 혁신제품이다. 이에따라 종래의 냉장고처럼 방열로 인한 실내온도 상승의 문제점이 없고 설치장소에도 벽과의 간격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대우전자는 설명했다.

지난 92년부터 17명의 기술인력을 투입해 제품화에 성공한 대우전자는 5일부터 개최되는 광주 전자전에 이 제품을 출품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상품화할 계획이다.

대우전자는 또 이 제품의 실제 사용시 별도의 배관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냉장고 택배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전문설치요원을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감시시스템 개발

LG전선(대표 權炫久)이 지하전력구 송전선로 감시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光전송 및 계측기술을 이용해 지하전력구내 유해환경 및 초고압 케이블과 접속재 이상상태를 감시한다.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은 △무단출입자 감시 △전력구내 온·습도 측정 △유독성, 폭발성가스 감시와 산소량 측정 등을 하게 되며 케이블 및 접속재 감시로는 △전류측정 △OF(oil Filled) 케이블의 유압과 누유 측정 △케이블 표면 온도측정 △케이블의 상하좌우 움직임 측정 등이 있다. 이 감시시스템은 긴 전력구의 일정 지점마다 설치된 센서를 통해 감지한 데이터를 광파이버를 이용해 전송하게 되는데 일반통신과 달리 3백45kV의 초고압에서도 강한 자기장등 유도장으로 인한 통신오류가 예방된다. **발특9606**